

2. MMF, MMDA, CMA, MMT 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은 ?

account account



MMF, MMDA, CMA 상품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CD, CP, RP 등의 상품들이 직접 매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들 입니다. 단기 상품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머니마켓펀드인 MMF,

종합자산관리계좌 인 CMA, 수시입출금식예금인 MMDA 인 것입니다.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통장(CMA)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개 모두 성격은 비슷합니다.

①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수 있지만 ② 이자율은 훨씬 높고 일 기준으로 붙는다는 것.

대체 이들 상품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걸까요?

③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자금을 모아 하루짜리

틀론,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등과 같은

기존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한 다음 운용성으로 생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가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입금과 출금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MMDA**는 은행에서 지난 1997년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생긴 예금상품으로,

①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으로 원금 까먹을 일도 없습니다.

③ 그러나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금액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또 7일 이상은 예치해두어야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정금리상품이란 무위험 때문에 이자율은 MMF보다 떨어집니다.

예치 자금이 1억 미만일 경우 2.5%~2.7% 정도가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입니다.

← 자금이 '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감.
MMF는 원래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초단기 상품이였으나

요즘엔 은행에서 더 잘 팔립니다. ^①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 실적 배당상품인 만큼 수익률은

MMDA에 비해 **0.5%** 정도 높습니다. ^② 특히 **MMDA**와 달리 가입금액별로

차등금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억 이하의 자금을 담아둘 계획이라면

MMDA보다 유리합니다. 이자율 수준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3.6%~4%** 정도입니다. **MMF**와 관련해서 재테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3년 3월 SK글로벌 사태가 터졌을 때는 **MMF** 수익률 급락뿐 아니라

환매정지 조치까지 이어져 원금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MMF** 원금손실을 걱정하는 건 다소 과한 우려라는 평가입니다.

이미 운용규정이 바뀌고 법규상 안전성은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③ 오히려 **MMF**의 최대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결제기능이 없어

공과금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이체 계좌로도 사용할 수 없어서 가계자금 관리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 **CMA**의 경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① **MMDA**나 **MMF**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이자수익 규모도 **MMF**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②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③ 특히 공과금 결제나 현금인출기를 통한 입출금도 자유로워 급여이체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재테크 필수 통장 쏘개기의 첫 번째 실행방법으로 급여이체통장은 반드시 **CMA**로 바꾸도록 해야합니다.

증권사들이 지난 200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CMA** 상품은 은행의 가상계좌와 연계돼 있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수시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수준은 각 **CMA**마다 다르지만 **3.5~4.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 등의 결제도 됩니다.

따라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보통예금통장을 보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는 충분합니다.

가령 종자돈 **1000만 원**을 은행 보통예금통장에 물어두었을 때 3개월 후 이자는 **2500원** 정도지만

CMA는(연3.7% 이자율 감안할 경우) 3개월 후 **9만 2500원** 정도의 이자가 붙습니다.

애인과 함께 맛있는 저녁 한 끼 즐길 정도는 될 금액이죠